

'미래의 땅' 아프리카,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서둘러야

아프리카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투자 열기 또한 뜨겁다. 2007년 설립된 아프리카 다자 개발금융기관인 아프리카금융공사(Africa Finance Corporation, AFC)는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700억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조달된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인프라 기후 회복력 기금(Infrastructure Climate Resilient Fund)으로 활용되어 아프리카 인프라 재건과 기후변화 프로젝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미지의 땅'으로만 여겨지던 아프리카 대륙이 '미래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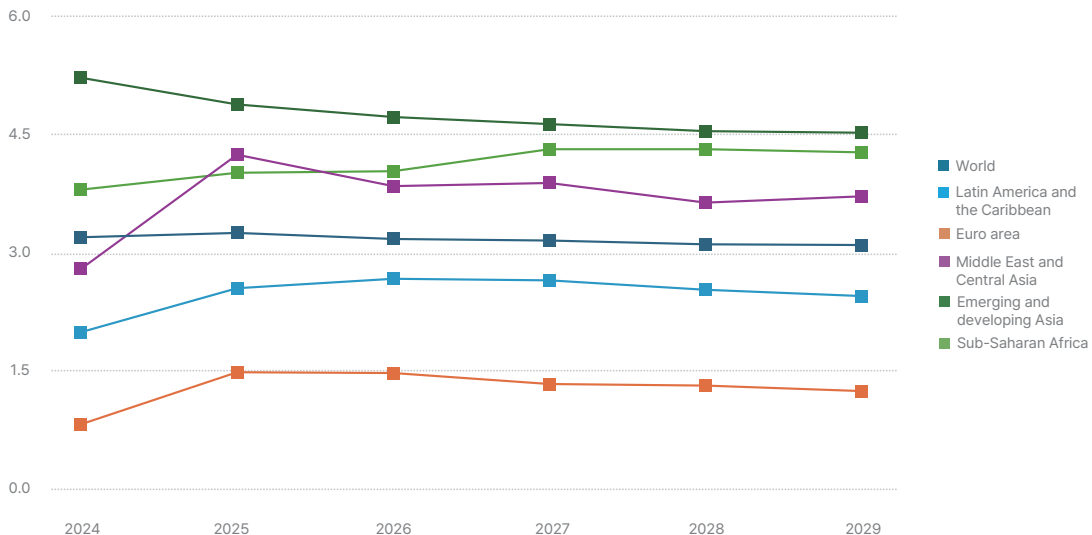
아프리카가 '미래의 땅'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생산가능인구 덕분이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광물 매장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백금족(PGM) 매장량 및 생산량의 약 92%, 크롬 56%, 코발트 70% 이상, 망간 60% 이상, 금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핵심광물 10개 중 리튬, 코발트, 백금을 포함한 총 7개의 광물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의 주요국에 비해 기업 지분 보유 핵심광물 광산 수와 귀속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됐으며, 향후 10년 내 생산가능인구도 10억 명에 이르러 인도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출범함에 따라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과 GDP 3.4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IMF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향후 5년간 평균적으로 약 4.1%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여 전 세계(3.1%), 유로(1.2%), 중동·중앙아시아(3.7%) 등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바야흐로 아프리카가 세계 경제발전의 동력원(powerhouse)으로 부상하는 중이다.

주요국 기업 지분 보유 핵심광물 광산 개수('22년)

	동	아연	연	철광석	니켈	리튬	코발트	총합
한국	14	12	7	12	5	5	5	36
일본	86	25	21	37	16	2	13	134
중국	950	597	524	657	178	92	137	1,992
미국	1,308	609	542	332	239	100	133	1,976

자료 :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Metals & Mining, 한경협 보도자료(5/28)
 *한 광산에서 여러 종류의 광물이 채굴되더라도 광산 개수 총합은 1로 반영

세계 '24~'29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IMF

아프리카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선진국의 대(對)아프리카 외교기조 또한 기존의 '시혜적' 관점에서 '동반자적' 관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은 그동안 아프리카를 원조 대상국으로 여기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해왔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AGOA)'을 중심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 개혁을 위해 원조를 제공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했다. 하지만 일찍이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공급기지로서의 아프리카의 가치를 파악한 중국과 더불어 일본,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국가들의 아프리카 투자가 확대되자, 서구국가들은 기존의 공여국과 수원국의 수직적 관계로는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어려워졌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선택자'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아프리카와 '경제적 파트너'로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아프리카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2022년 8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략(U.S. Strategy Towards Sub-Saharan Africa)'을 발표하고 고위급 회의를 추진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유럽 각국 정상들도 앞다투어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을 방문해 MOU를 체결했으며, 2022년 11월에는 'EU-아프리카: 글로벌 게이트웨이 투자 패키지(EU-Africa: Global Gateway Investment Package)'를 발표하며 약 1,500억 유로(한화 약 224조원) 상당을 아프리카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아프리카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한국도 지난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미래파트너로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는 △광물(Resources) △에너지(Energy) △인프라(Infrastructure)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광물자원은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공급망 다변화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높은 수요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낙후된 인프라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아프리카의 자원 개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내에서도 국가별로 정치적 안정성, 자원부존 현황, 인구구조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국가별 맞춤형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협력 유망 국가 및 분야

국가	협력분야	상세내용
모로코	광물 에너지	-인광석(배터리 핵심 소재) 매장량 세계 1위 -미국 포함 총 55개국과 FTA 체결 → 美 IRA 대응 유리 -'15년 이후 정유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 원유수급에 차질 → 정유·고속철 등 분야 협력 확대
탄자니아	광물 에너지	-니켈 매장량 세계 1위, 국내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 자원개발 투자 활발, 中 일대일로에 대한 반감 → 對한국 협력 유망 -천연가스 풍부 → 복합화력발전소(Gas to Power) 건설
에티오피아	인프라	-풍부한 노동력(인구 1.2억명) 및 아프리카 연합 본부 소재 등 대표성, 한국의 핵심 ODA 파트너 -남부 전력망 확충, 지하수 관개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진행 사업 관련 협력 강화
남아공	광물 인프라 에너지	-망간 매장량 세계 1위, 만성적 전력난 해결이 국가핵심 과제 → 자원협력, 노후화 발전 설비 정비 및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 -2.5GW 규모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올해 입찰 예정으로 한국 기업 기술력 홍보 및 협력 가능성 대두
이집트	에너지	-아프리카 맹주 국가로 국방·신재생에너지 등에 관심 → 그린수소 개발, 친환경 연료 선박 등 친환경 분야 프로젝트 협력 활성화

자료 : 언론보도, 각종 보고서 등 종합 환경협 작성

배터리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인광석 매장량 세계 1위인 모로코는 광물 분야 협력이 유망하다. 모로코는 미국을 포함해서 총 55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미국의 IRA법 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탄자니아의 경우 니켈 매장량이 세계 1위면서 국내 정세도 비교적 안정적이라 광물 분야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탄자니아 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인한 반중국 정서가 만연하기에 이를 對한국 협력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구 1억 2천만명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에티오피아는 인프라 분야 협력이 유망하다.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부 지역 전력망 확충, 지하수 관개 등의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인프라 경협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높은 투자매력도에도 불구하고 對아프리카 투자는 다양한 리스크를 동반한다. 가령 아프리카의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처럼 아프리카 내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한 패키지 딜(package deal) 형식으로 자원 개발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패키지 딜은 자원개발업체와 SOC건설업체가 달라 상이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자원 탐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 투자 대비 낮은 성공률, 아프리카 지역의 높은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 대비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법률체계가 부실하고 부패 문제가 만연해 있으며, 장기간의 투자 기간이 소요되는 광산업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광물 채취 로열티와 세금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드러나고 있는 반서방 정서는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 보다 섬세한 접근을 요구한다. 2022년 3월 2일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아프리카 54개국 중 26개국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데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는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 경험이 있는 아프리카 국가 절반 가량이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반감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 진출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과 협력할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편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민지배 및 최빈국을 경험했던 동질감을 바탕으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중장기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여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로의 FDI(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1년에는 역대 최고 금액인 796억 달러(한화 약 110조원)를 기록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역외 수출 및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 2.8%('22년 기준)에 불과하여 한국과의 경제교류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아프리카는 원조와 지원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아프리카를 동반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 특히 핵심광물에 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한다. **FKI**